

## 2017 서울디자인리포트(가제) 연구진 회의록

일시	2017. 9. 14(목) 10:30~13:00	장소	재단 7층 회의실	작성자	최시은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문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인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재범,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소센터장 변미리, 한국예술종합학교 몰입경험디자인랩 연구원 이윤이</li> <li>○2017 서울디자인백서 연구원: 디커넥트랩 전민정 연구원</li> <li>○2017 서울디자인서베이 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우석 교수, 윤나래 연구원, 경기연구원 손웅비 연구원</li> <li>○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소센터장 신윤재, 선임 강지혜, 김진래, 김아현, 이슬예리, 박주은, 최시은</li> </ul>				
주제	2017 서울디자인리포트(가제) 연구 진행 상황 공유				
회의 내용 요약	<p><b>□안건1. 디자인 지표 조사: 디자인 분야 확대 조사방향(패션, UD, 디자인행사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와 재단의 주요 사업인 유니버설디자인, 업사이클링 항목 확대 예정</li> <li>○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관련 분야에 관심 많은 대학생 타깃 조사 제안</li> </ul> <p><b>□안건2. 시민디자인의식조사 보완사항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척도: 긍정적 답변율에 따라, 작년의 4점 척도에서 8~10점 척도로 조정</li> <li>○기간: 기간 조사내용에서 1년과 3년에 해당하는 질문을 1년으로 통일하는 것은, 유효 응답이 부족해질 수 있는 문제점 고려 필요</li> </ul> <p><b>□안건3. 인포그래픽 강화한 '한눈에 보는 서울디자인' 방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눈에 보는 서울디자인'의 구성에 대한 균형과 백서, 서베이의와의 합본 구성 고려 필요</li> <li>○타이틀과 인포그래픽과의 직관적인 연결 필요</li> <li>○추후 주제별로 리스트업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홍보 필요</li> </ul> <p><b>□안건4. 시민디자인키워드 도출 방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oogle Scholar뿐만 아니라, 시민 접근성 높은 네이버 블로그 등 활용 제안</li> </ul>				
회의 내용	<p><b>□선임 강지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번 연구는 크게 3가지 과업을 진행한다. 서울디자인백서 연계연구와 합본 발간, 서베이 지표조사 및 데이터 분석, 시민디자인키워드 선정이다.</li> </ul> <p><b>□센터장 변미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보고서는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소량 인쇄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서의 압축본, 주제본으로서의 '한눈에 보는 서울디자인'이므로 백서와 따로 내야 하지 않을까. 정책 결정자, 시민, 기자가 「한눈에 보는 서울」을 레퍼런스로 써서 기사화를 많이 한다. 그래서 백서 뒤에 붙지 않고 별책으로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서베이와 '한눈에 보는 서울디자인'이 하나이고, 백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축적본, 기록용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는 서울디자인'이 독자적으로 나오는 게 배포, 참고하기도 쉽다. 특히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거나 디자인 관련자들은 많이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다.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 중 하나가 기사화되는 것인데, 기자들이 좋아하는 게 「한눈에 보는 서울」이라서, '한눈에 보는 서울디자인'도 별책본으로 나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li> <li>○결국 인포그래픽 형태를 어떻게 만들지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타이틀로 나와 있는 건 아직 보고서처럼 느껴진다. 타이틀만 보면 어떤 그래프와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제들에 대한 조정이 여러 번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모든 걸 포함한 분석적인 서울서베이와 「한눈에 보는 서울」이 있는데, 본 보고서를 내지 말까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보는 서울」만 보고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다.</li> <li>○그리고 구성에 대한 밸런스가 필요할 것 같다. 주제가 있는데 서브타이틀처럼 독립적 주제가 하나씩 들어가는 건지, 3개 꼭지 안에 서브타이틀이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가능하면 OECD처럼 1쪽에는 그것에 대한 분석, 1쪽에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주목도가 높다. 대부분의 인포그래픽 형태는 거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필요할 것 같다.</li> </ul>				

<p><b>□교수 박인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디자인서베이 개요 중에 시민의 관점에서 서울의 디자인을 담아내는 책이었는데, 시민 관점에서 책을 주면 '한눈에 보는 서울디자인'이 될 수 있는데, 책이 도달하지 않는다. 아마 배포할 때 몇만 권 찍지 않죠? 어떻게 보면 사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배포지, 시민이 손쉽게 알 수 없는 것 같다. 인터넷 등 전자미디어를 통한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난 선거 때 보니까 휴대폰으로 정보를 받아보는 것도 있더라. 우리가 다는 아니어도 신문기자, 시민이 관심 가질만한 것은 정기적으로 배포돼서 인터넷으로 타고 들어가고,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게 시민을 위한 자료로서 좋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li> </ul> <p><b>□센터장 변미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DF 파일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전자책으로 만들라는 뜻이죠?</li> </ul> <p><b>□교수 박인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는 과정에서 시민이 담당 부서와 연결될 수 있는 등 시민들과의 인터랙션이 더 많아야 한다.</li> </ul> <p><b>□교수 서우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계속 확대돼야 하는 사업인 것 같다. 그러면 서베이에서 어떻게 확대 적용할 수 있을까? 질문을 세분화하는 건 어떤가? 지금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묶어서 서베이했는데 주제나 대상별로 세부적으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보겠다.</li> </ul> <p><b>□센터장 변미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에 DB를 구축해서 배너를 달아놓으면 책이 뜨는 게 아니라, 인포그래픽을 주제별로 리스트업해서 그게 뜨는 형태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처음에는 PDF 파일이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옮겨가면 좋다. 박인석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터랙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서울시에서는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로우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올려놓으면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li> </ul> <p><b>□연구원 이윤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의식조사 프로세스가 조사하기 수월할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이 조사가 더 발전되는 관점에서 보면 더 생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키워드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날지 등이 궁금할 것 같다. 하나로 뜨는 것도 시사점은 있지만 약간 꾸며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화하고, 키워드를 도출할 때 지역적으로 하면 어떨까. 두 번째는 전문가 조사를 할 때도 지역성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키워드를 도출할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생각해서 뽑아보라고 하면 어떨까. 개념상의 위계들은 조사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li> </ul> <p><b>□센터장 변미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국 키워드는 향후 시민들이 생각하는 디자인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 하는 거죠?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디자인으로 어떤 말을 하고 인상을 갖고 있는 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봐야 한다. 인스타그램은 영상, 사진이니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블로그는 정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블로그는 장소 키워드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서울 사람들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다. 몇 년 전에 서울시, 정책, 사람에 대한 SNS 키워드 분석을 했는데, '정책'이 들어가니까 잘 나오지 않았다. 블로그를 해보면 본래 하고 싶은 게 더 부각되지 않을까. 조사 시점을 보면 '서울 비엔날레' 등에 대해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li> </ul> <p><b>□교수 박인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베이와 백서가 하나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이 자신과 관계되는 게 뭐가 있는지 등이 한 번에 쪽 열거돼서 찾아가 수 있게 해야 한다.</li> <li>○두 번째는 전문가가 아니라 잡지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거듭 시민의 눈높이, 입장,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했지만 시민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건 잡지쟁이들이</li> </ul>
---

	<p>잘한다.</p> <p><b>□센터장 신윤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게 보고서 포맷인데, 몇 가지는 잡지처럼 만들자고 시도했다. 예를 들면, 푸드트럭, 패션워크를 취재한 시민디자인연구단 등이 있다. 서베이에 대해서도 핵심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li> </ul> <p><b>□교수 김재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첫 번째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백서, 서베이, 한눈에 보는 서울디자인 3개가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만약 따로 가면 잘 모르겠지만, 굳이 백서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다. 따로 떼어버린다고 하면 크게 뭐 하나로 가고, 별책으로 간다면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다.</li> <li>○두 번째로 서베이는 개조체로 되어있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진다. 연구하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개조체로 써야 한다. 외국 문화산업 백서 사례를 보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2~3개 정도 쓰고 끝난다. 길게 쓰면 쓰는 사람도 힘들고 읽는 사람도 귀찮아서 안 본다.</li> <li>○세 번째는 제가 가진 기본적인 불신인데, 최근 몇 년 간 너무 시민에게 의존하는 것 같다. 시민에게 의식을 묻는 건 좋은데, 어떤 시민에게 묻는지 중요하다. 샘플링의 방식이 어떤가? 제가 아는 많은 서울시민들은 디자인에 관심이 없거나 과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냥 대충 답하고 끝날 것이다. 그럼 결과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서, 타깃을 어떤 시민들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록 랜덤하지 않고 전통적인 연구 샘플링과 다르더라도 타깃을 잡아서 하는 게 오히려 연구 결과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다.</li> <li>○그리고 구글 스콜라는 의미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구글과 네이버는 분명히 다르다. 네이버를 본다면 어떻게 분석할지 고민해야 한다. 허접한 글들이 많은 네이버 글들을 분석하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 네이버보다 전문적인 사이트는 없는 것인지 고민하면 좋겠다.</li> <li>○발표 자료의 13쪽의 생활문화 디자인 부분을 보면, 디자인 관련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물관에서 디자인 부분만 추리겠다는 것인가? 어디가 디자인 관련 박물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14쪽에는 디자인 교육을 일반 시민, 아동·청소년이라고 했는데, 고령 혹은 정년 이후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졌다. 그들에 대한 디자인교육도 중요한 건 아닌지.</li> <li>○그리고 척도 부분에 관련해서, 척도가 되게 애매하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7점이나 9점 척도를 많이 쓴다. 기존에 4점이 있어서 혼란이나 연속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척도의 문제점은 강제적으로 긍정이나 부정 답변을 취하게 만든다. 실제 시민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긍정이나 부정인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5점을 하면 다 3점을 찍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다. 9점이나 7점을 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4점이나 6점을 찍을 수 있다.</li> <li>○그리고 조사 기준을 1년으로 정했는데, 통일성을 보면 이게 맞지만 사람들은 자주 디자인 경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1년 동안 안 했다고 해서 다 빼버리는 건 아닌 것 같고, 1년과 3년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아이템이 너무 많아진다.</li> <li>○공간은 2가지 측면 공간이 있는데, 거주지와 직장공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직장과 거주 공간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되게 많다. 공간이라고 할 때, 직장과 거주 공간을 구분해보시면 좋겠다.</li> <li>○업사이클링과 유니버설디자인은 개인적으로 해외에 있는 한국인 전문가에게 자문 받으면 좋겠다. 실제로 관심 없을 것 같지만 대학생들만 해도 업사이클링과 유니버설디자인에 관심 많아서,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하면 어떨까.</li> <li>○20쪽을 보면 기사 키워드 분석이 있다. 신문 기사도 제대로 분석하려면,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있어서 원래는 2개를 합치는 것보다 따로 하는 게 맞다.</li> <li>○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 더 묻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li> </ul> <p><b>□교수 박인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물질 중심적이다. 풍요보다는 삶을</li> </ul>
--	--

	<p>'건강하게 하는'이라는 말이 어떤가. 풍요라는 말이 물질적으로 느껴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또 하나는 디자인 교육, 정책, 산업인데 왜 문화만 생활문화 디자인인가? 그건 레벨이 다르다. 디자인 문화 중에서도 생활문화 디자인으로 영역을 좁힌 것 같다. 왜 그것 하나만 그렇게 되어 있을까? 디자인의 결과는 문화, 사회 예술 등 여러 측면이 있다.</li> </ul> <p><b>□센터장 신윤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는 말이다. 관점에 따라 엄격하게 나누기 힘들다. 예를 들어 패션도 산업, 예술 등 무엇으로도 볼 수 있다.</li> </ul> <p><b>□교수 박인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 중에 디자이너도 있다. 디자이너가 직업병이 있는지, 서울 디자이너는 부산 디자이너보다 오래 사는지 알아야 한다. 시민을 개념상 시민이라고만 했지, 디자인 생산자, 행정이, 수혜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에는 너무 뭉뚱그려 봤다.</li> </ul> <p><b>□센터장 변미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백서가 활용되는 방식은,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아무도 몰라,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알게끔 하기 위해 7~8년 전부터 모든 곳에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정책 매뉴얼처럼 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서는 사실 재단에서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망라하고, 디자이너든 누구든 백서를 뒤져보면 알 수 있는 게 그 목적이다. 따라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백서에서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li> </ul> <p><b>□센터장 신윤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번 백서에는 격년 발간으로 결정되어 3년치를 담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실히 최대한 담도록 진행하려고 한다.</li> </ul> <p><b>□연구원 이윤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에 대해 말하고 싶는데, 서울시는 딱히 디자인 관련이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위로 구분할 때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기준에 관해서는, 사실 서울시에 물어봐도 기준이 없기는 할 것이다. 어쨌든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참조해보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li> </ul> <p><b>□교수 박인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패널 서베이를 추적조사로 한 사람에게 매년 같은 질문을 하면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인터뷰하듯이 심도 있게 한 그룹은 디자이너, 한 그룹은 시민으로 해서.</li> </ul> <p><b>□센터장 신윤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해는 경영진 인터뷰도 포함해보자는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디자이너 대상 인터뷰의 축소판이 아닐까 싶다.</li> </ul> <p><b>□교수 서우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이너 대상 조사도 서베이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필요하긴 할 것 같다.</li> </ul> <p><b>□센터장 변미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문화부, 패션, 창업은 경제본부에서 한다. 일하는 것으로서의 디자이너는 사실 경제본부의 영역이다. 경제조사라는 걸 경제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디자이너 그룹들을 협의하든지, 정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서울에 대한 관심이 많다.</li> </ul> <p><b>□센터장 신윤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하다면 경제본부의 예산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미술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디자인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너무 없지 않았는지 디자인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디자인산업에 대한 변화의 흐름이 있을 것 같다.</li> </ul>
--	--

그런 차원에서 디자이너 대상 서베이는 못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해보지 않을까 싶다.

**□선임 강지혜**

◦올해는 FGI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원 손응비**

◦디자이너에 대한 추적을 여러 가지 생각해봤다. 디자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후에 진출할 인력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다. 사실 이전에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했는데,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것과 별개로라도 하는 건 의미 있는 것 같다.

**□연구원 이윤이**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정경쟁 이슈가 있다. 잘 아시겠지만 균함도도 그렇다. 얼마 전에 동반성장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패널 서베이가 들어가고, 정책적 효과성을 가지려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어렵까. 산업 안에서 공정한 룰이 안 잡히면 지속적으로 가기가 어렵다. 역할로 치면 KIDP가 해야할 일이 아닐까 물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대로 잡을 수도 있다고 본다.

**□교수 김재범**

◦디자이너 관련 얘기하셨는데 사실 각 대학 디자인학과 졸업생들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안했는지를 알 수 있다. 디자인학회와 협력해서, 디자인과 모든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저도 서울시에서 공무원 대상 정책 제안 심사, 서울시에서 각 대학에 있는 학생들 대상 공모 심사해봤다. 서베이를 매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서베이 코딩 로우데이터를 공개해서, 대학원생이나 관련 대학에 오픈해서, 데이터 분석해서 결과 뽑고 제안까지 해봐라. 서울시, 서울연구원, 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다음 서베이까지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요새 이렇게 많이 한다. 특히 요즘 제일 강조하는 게 일자리니까.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데 디자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디자인 전공했는데 디자인 업계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정부정책과도 맞다.

**□센터장 변미리**

◦데이터가 이미 축적되어 있으니까 공모전 형식으로 하는 건 예산도 별로 안 들고 큰 힘이 안드니까 내년 자체기획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은 좋은 것 같다.

**□교수 김재범**

◦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예산으로 많은 항목들에 대해 다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선택과 집중을 해도 괜찮다.

**□교수 박인석**

◦올해는 계획하신대로 하고, 내년부터 어떤가. 관심사가 일자리, 빅데이터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이게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빅데이터와 관련 있을 거 같다. 앞으로는 일목요연했으면 좋겠다. 소프트한 편집이었으면 좋겠다. 데이터는 아주 공정하고 정확해도, 다가가는 방법이 소프트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과학창의재단에서 낸 거 보면 타이틀이 재미있고 관심이 가게 되어있다. 통로가 필요하다.

**□센터장 변미리**

◦아트앤컬처라는 케이블채널과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 거기는 데이터가 없어서 문제다. 채널의 다변화는 저희가 뭘 만들 때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다.

회의 사진

